

「왕취까오(王旭高)*의 학술사상에 미친 에티엔스(葉天士)**의 영향」**

- 왕취까오 學術思想의 分析 -

초양츠문(長春)市 中醫院 內科 장지엔스(張堅石) 지음
경산 대학교 한의학부 원전 의사학 교실 申舜植 옮김

清代의 著名한 의가인 왕취까오(王旭高) [1798~1862]는 일찍부터 그의 외삼촌인 까오미엔팅(高綿庭)을 따라 의학을 익혔다. 처음에는 瘍醫였고 뒤날에는 雜病을 치료했는데, 더우기 그는 肝病을 잘 치료하는 것으로 後世의 醫林에 이름이 났다. 필자는 왕취까오가 비록 그의 외삼촌인 까오미엔팅에게서 수업을 받았지만 그의 학술사상은 오히려 清代의 名醫인 에티엔스(葉天士)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연구하였다.

一.“肝氣·肝風·肝火는 根源은 같은데 이름이 다르다”(肝氣·肝風·肝火同源異名)라는 학설은 원래 예(葉)氏가 먼저 만든 것이다.

왕취까오는 『西溪書屋夜話錄』속의 開篇에서 곧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출하였다: “肝氣·肝風·肝火 셋은 같은데서 나왔지만 이름은 다르다. 그 中에서 侮脾乘胃·沖心犯肺·挾寒挾痰·本虛標實로 여러가지로 다르므로 肝病은 가장 복잡하면서 治法은 가장 넓다.” (肝氣·肝風·肝火, 三者同出異名. 其中侮脾乘胃, 沖心犯肺, 挾寒挾痰, 本虛標實, 種種不同, 故肝病最難而治法最廣.) 여기서 肝氣·肝風·肝火는 모두 肝病이다. 病이 足厥陰肝經에서

일어나므로 “同出”이라고 한 것이고; 肝氣·肝風·肝火는 또한 肝病이 발전하는 과정중의 세계의 다른 단계이고 程度上 다르므로 “異名”이라고 한 것이다. 肝氣가 鬱結하면 肝氣로 變하게 되고, 鬱이 오래되어 熱로 되면 肝火가 되고, 위로 올라가 巔頂에 미치면 肝風이 된다. 後世 醫家는 한결같이 왕취까오를 들어 모두 그가 “肝氣·肝風·肝火 셋은 根源은 같지만 이름은 다르다”(肝氣·肝風·肝火同源異名)는 학설을 먼저 제창했다고 생각했다. 다만 에티엔스의 문인인 사오신후우(邵新甫)는 『臨證指南醫案』(다음부터는 간단하게 『指南』이라 일컫는다)의 『醫肝火門』의 按語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古人이 비록 肝風·肝氣·肝火로 다르게 나누었지만 그 사실은 同一한 根源이다. 만약 鬱이 지나친 者는 辛과 涼이 알맞고, 乘勢는 이를 到達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지나치게 오른 것은 柔와 降이 알맞고, 그 들고 요란하게 하는 것을 완만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며; 스스로 다하는 者는 全部 虛에 속하니, 子母의 臟을 培로 하는 것이 합당하고; 上은 犯하고 中은 侮하며 下는 乘하는 모든 累에 이르러서는 各門에 흩어져 나타나니 考察할 수 있다.”(古人雖分

* 인명·지명 등 고유명사의 중국음에 대한 우리말 표기는 씨케이 시스템(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통나무, 1986년, 349~361쪽)에 의한 것이다.

** 「葉天士對王旭高學術思想的影響 - 王旭高學術思想淺析」(長春市 中醫院 內科 張堅石, 『吉林中醫藥』 1990年 第1期, 39~40쪽.)을 번역한 것이다.

肝風·肝氣·肝火之殊，其實是同一源。若過鬱者宜辛宜涼，乘勢達之爲妥；過升者宜柔宜降，緩其旋擾爲先；自竭者全屬乎虛，當培子母之臟；至于犯上侮中乘下諸累，散見各門可考。）

“肝氣·肝風·肝火 셋은 根源은 같으나 이름은 다르다”(肝氣·肝風·肝火同源異名)는 학설의 제창은 왕슈까오와 예티엔스의 문인인 사오신후우중에서 누가 먼저이고 누가 뒤인가? 우리들이 한번 조사해보니 『指南』의 「序言」시간은 분명하게 알 수 있다. 『指南』은 먼저 리즈원(李治運)이 乾隆29년(1765년)에 「序」를 하고, 다음에 후아시우원(華岫雲)·사오신후우(邵新甫)가 「序」를 했으며, 왕슈까오의 生卒年은 1798~1862년이다. 이로써 사오신후우가 당연히 왕슈까오의 앞에서 이 학설을 제출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만일 왕슈까오가 20세때에 지은 『西溪書屋夜話錄』에 따르면 사오신후우가 적어도 왕슈까오와 견주어 51년이나 빠르게 이 학설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왕슈까오는 溫病治療는 물론이고 肝病方面治療에도 모두 매우 예티엔스를 추앙했다.(뒷 글에서 論述) 그러므로 우리들은 왕슈까오가 제출한 “肝氣·肝風·肝火 셋은 같은데서 나왔으면서 이름은 다르다”(肝氣·肝風·肝火同出異名)는 예티엔스의 문인인 사오신후우의 “肝風·肝氣·肝火 셋은 이름은 다르지만 根源은 같다”(肝風·肝氣·肝火異名同源)를 본따서 나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二.溫病診斷方法과 方藥의 많은 것은 『外感溫熱篇』을 따랐다.

清代 溫病學家인 예티엔스의 溫病學에 대한 주된 공헌은 溫邪로 일어난 병의 發生發展規律을 闡明하고 衛氣營血의 辨證論治體系를 세우고 창조적으로 溫病的 診斷法과 치료 원칙을 발전시킨데 있다. 이러한 이론은 주로 『外感溫熱篇』에 게재되어 있다. 왕슈까오는 그 학설에 깊이 감복했다. 醫案속에 여러차례

예(葉)氏가 만든 溫病理論을 언급하고 溫病的 진단과 치료의 많은 것을 『外感溫熱篇』에서는 한 法을 따랐다. 왕슈까오는 예티엔스와 마찬가지로 溫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舌診을 몹시 중시했다. 예를 들어보자. 『王旭高醫案』 「溫邪門」(다음에서 들은 왕슈까오(王旭高)醫案은 모두 「溫邪門」속에 있는 내용과 관련된다.)의 宋案四診中에서는 “대개 溫邪의 時症은 驗舌이 먼저가 된다.”(大凡溫邪時症, 驗舌爲先.)라고 했다. 또 顧案復診中에서는 “苔의 色이 희고 말라 있으며 얇게 낀 者는 肺液이 손상된 것이다.”(苔白乾薄者, 肺液傷也.)라고 했다. 驗舌은 예氏의 溫病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중의 하나이다. 이는 『外感溫熱篇』중에 여러차례 언급되어 있다. 『外感溫熱篇』의 「第19條」에는 “苔의 色이 희고 말라 있으며 얇게 낀 者는 肺津이 손상된 것이니, 麥門冬·花露·蘆根汁 등의 輕淸한 藥品을 넣어 다스린다.”(苔白乾薄者, 肺津傷也, 加麥冬·花露·蘆根汁等淸淸之品.)가 게재되어 있다. 또 예를 들어보자. 왕슈까오는 嚴案中에서 “그러나 예(葉)氏는 ‘처음 병이 생겼을 때 혀가 마르고 精神이 약간 模糊한 者는 急히 養正을 하고 약간의 透邪藥을 넣어 다스리는 것이 알맞다’고 했다. 만약 昏愼하는데도 뒤에 救裡한다면, 일이 썩 急하여 손을 댈 틈이 없는 罔려됨이 있을 것이다.”(然葉氏云初起舌即乾·神略糊者, 宜急養正, 微加透邪之藥. 若昏愼而後救裡, 有措手不及之虞矣.)라고 했다. 이 條는 『外感溫熱篇』의 「第19條」에 “처음 病에 걸렸을 때 혀가 곧 마르고 精神이 어두워졌으면, 이것은 內匱일 것이니, 藥으로 救할 수 없을 것이다.”(初病舌就乾, 神不昏者, 宜急養正微加透邪之藥; 若神已昏, 此內匱矣, 不可救藥.)가 실려 있다.

왕슈까오는 溫邪入營治法을 논할 때에 “밖

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온 것은 氣에서부터 營으로 傳해졌기 때문이고, 熱이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온 것은 營에서부터 氣로 도달했기 때문이다.”(從外入內由氣傳營, 熱自內出由營達氣)(『王旭高醫案』 25頁 「察案」)라 했는데, 실제로는 예티엔스의 “營으로 들어온 것은 오히려 透熱轉氣로써 풀어질 수 있다”(入營猶可透熱轉氣而解)의 학설을 따랐다. 왕쉬까오는 宋案四診中에서 “예(葉)氏は 이르기를 ‘邪가 잠시 營으로 들어가면 오히려 透熱이 옳다. 거듭해서 氣分으로 옮겨져서 풀어진다. 예컨대 犀角·羚羊角·元參·連翹 등이 이것이다’라 했다.”(葉氏云: 邪乍入營, 猶可透熱, 仍轉氣分而解, 如犀·羚·元·翹等是也.)라고 했다. 이는 예티엔스의 『外感溫熱篇』중에서 營分證을 치료하는데 쓴 약물과 서로 같다.

왕쉬까오는 溫病發斑을 치료할 때에 初期에는 陽明胃火가 極盛하니 白虎湯·玉女煎에 犀角·生地黃을 넣어 치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 보자. 醫案 高某六診에서는 “입냄새를 다른 사람에게 풍기는 것은 胃火가 極盛해서이고; 斑疹이 비록 나타나도 꿩고 지나가는 것이 아직은 충분치 못하고; 눈은 빨갛고 정신은 흐리멍덩하며 脈象은 洪하고 口溫하다. 급히 化斑하는 것이 중요하다. 古法의 化斑은 白虎湯이 주가 된다. 지금은 거듭 참고해서 犀角으로 淸營解毒하고 다시 玉女煎(犀角·黑膏·麥冬·天竺黃·大生地·知母·沙參·洋參·菖蒲·人中黃·蘆根·石膏)을 복용하여 陰을 保存한다.”(口臭噴人, 胃火極盛; 斑疹雖見, 透而未足; 目赤神糊, 脈洪口溫. 急急化斑爲要. 古法化斑以白虎爲主, 今仍參以犀角淸營解毒, 再服存陰玉女煎: 犀角·黑膏·麥冬·天竺黃·大生地·知母·沙參·洋參·菖蒲·人中黃·蘆根·石膏)라고 했다. 中期에는 少陰의 陰液이 모자라고 陽明胃火가 남아돌아가니 玉女煎을 써서 치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를 들어보자. 위

의 醫案八診에서는 “이 때는 陰이 손상하여 火가 왕성하게 되니, 少陰이 모자라고 陽明이 남아돌아가게 된다. 景岳의 玉女煎이 가장 적합하다.”(際此陰傷火旺, 少陰不足, 陽明有餘, 景岳玉女煎最合.)라 했다. 後期는 耳聾으로 듣지 못하고 腎陰이 크게 손상을 받고 나머지 病邪가 다 없어지지 않았으니, 復脈湯에 黃連阿膠湯을 합해 化裁해서 쓴다. 예를 들어 보자. 위의 醫案의 十一診에서 “耳聾으로 듣지 못하고 혀가 말라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陰津이 크게 손상된 것이니 復脈湯(大生地·麥冬·元參·洋參·阿膠(川連粉拌抄)·生甘草·鷄子黃)을 쓴다.”(耳聾無聞, 舌乾難掉, 陰津大傷用復脈湯: 大生地·麥冬·元參·洋參·阿膠(川連粉拌抄)·生甘草·鷄子黃.)라 했다. 왕쉬까오가 論한 바는 『外感溫熱篇』중의 「第3條」에 있는 “만일 斑이 나왔으되 熱이 풀어지지 않은 者는 胃津이 없어진 것이다. 주로 甘寒藥으로 하되 重하면 玉女煎 같은 것으로 반드시 혀를 微驗하고는 이를 떤면 甘寒藥에다 鹹寒藥을 넣어 쓴다.”(若斑出熱不解者, 胃津亡也. 主以甘寒, 重則如玉女煎 必驗之于舌, 如甘寒之中加入鹹寒)와 비교해 보면 치료원칙은 물론이고 用藥上에서도 지극히 서로 비슷하다.

그 밖에 왕쉬까오는 某案三診中에서 “養陰은 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津과 汗에 있는 것이니, 이는 예(葉)氏의 名言이다.”(養陰不在血, 而在津與汗, 葉氏之名言.)라 했다. 또 宋案中에서는 “救陰은 腎에 있는 것이 아니고 胃津을 생기게 하는데 있고; 去濕은 말리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小便을 通하게 하는데 있다. 대개 瞞은 津에서 생기고 津이 채워지면 瞞이 나와 熱이 풀어지며; 小腸은 心의 府인 관계로, 小便이 通利하면 心火가 내려가고 精神이 절로 맑아진다.”(救陰不在腎, 而在生胃津; 去濕不可燥, 而在通小便. 蓋汗生于津, 津

充汗出而熱解；小腸爲心之府，小便通利心火降而神自清.)라 했다. 이것은 뚜렷히 예티엔스의 『外感溫熱篇』 「第9條」에 있는 “救陰은 血에 있지 않고 津과 汗에 있으며, 通陽은 溫시킴에 있지 않고 利小便에 있다.”(救陰不在血, 而在津與汗, 通陽不在溫, 而在利小便)라는 名言句의 發揮이다. 왕슈까오는 예티엔스의 溫病學說을 갑질이나 추앙했고, 清代 의가인 황정시아(方耕霞)氏가 왕슈까오의 醫案을 評價할 때에 “깊이 예(葉)氏의 心傳을 얻었다”(深得 葉氏心傳)라고 말한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三.왕씨의 肝을 치료하는 세가지 法은 예(葉)氏 醫案을 본받았다.

예티엔스는 일생동안 진료업무에 바빠서 책을 지을 여가가 없었다. 그의 肝病을 치료한 경험은 그의 문인이 그를 위해서 정리한 醫案속에 흩어져 보인다. 왕슈까오는 肝病을 치료하는 것으로 후세에 이름이 났는데, 그가지은 『西溪書屋夜話錄』에 모두 肝을 치료하는 법칙 三法이 실려 있다. 필자는 『西溪書屋夜話錄』속에 실린 肝을 치료하는 법칙도 예티엔스의 영향을 깊게 받았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보자. 疏肝通絡法의 경우, 왕슈까오는 “만일 疏肝하여 반응이 없으면 營氣가 痺窒하고 絡脈이 瘀阻한 것이니, 兼해서 通血絡을 하는 것이 적당하다. 예컨대 旋復·新絳·歸鬚·桃仁·澤蘭葉 등이 알맞다.”(如疏肝不應, 營氣痺窒, 絡脈瘀阻, 宜兼通血絡, 如旋復·新絳·歸鬚·桃仁·澤蘭葉等.)라고 했다. 肝氣鬱結의 환자가 疏肝理氣法을 써서 효과를 보지 못할 때는 肝氣鬱結 뿐만이 아니고 營氣가 痺窒하고 絡脈이 瘀阻한 것이니 疏肝通絡法을 써서 치료함이 알맞다. 『內經』에서는 “그 血氣를 疏하여 그것이 條達하게 한다.”(疏其血氣, 令其條達)라 했고, 『難經』 「二十二難」에서는 “氣가 머물러 있으면서 가지 않는 者는 氣가 먼저 病에 걸린 것이고, 血이 막혀

서 濡養해 주지 못하는 者는 血이 뒤에 病걸린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는 是動이 되고 뒤는 所生이 된다.”(氣留而不行者爲氣先病也, 血壅而不濡者爲血後病也, 故先爲是動, 後爲所生.)라고 했다. 이것이 그 이론기초이다. 漢代의 장중징(張仲景)은 『內經』·『難經』의 啓發 아래에서 旋覆花湯(旋覆花·新絳·青葱管)을 제정했는데, 旋覆花湯은 肝絡凝瘀를 치료하는 要方이다. 뒤에 나온 예티엔스는 또한 “초기의 病은 氣結로 經에 있고, 久病은 血傷으로 絡으로 들어간다.”(初病氣結在經, 久病血傷入絡.)의 이론을 제출했고, 아울러 旋覆花湯의 기초위에서 辛潤通絡法을 세웠다. 藥으로는 歸尾·桃仁·新絳·旋覆花·青葱管·柏子仁·澤蘭을 썼다. 예를 들어 보자. 『指南』 「脇痛門」의 沈案에서는 “처음에는 몸이 차고 寒熱이 나고 점차로 脇肋에 미치고 脘痛이 있으며 밥을 먹으면 痛症이 增加하고 大便은 燥結해진다. 久病入絡에 神怯瘦損을 兼했으니, 辛香剛燥藥은 절대로 써서는 안된다.”(初起形寒寒熱, 漸及脇肋, 脘痛進食痛加, 大便燥結, 久病入絡兼神怯瘦損, 辛香剛燥決不可用.)라고 했다. 여기서 旋覆花·新絳·青葱管·桃仁·歸鬚·柏子仁은 왕슈까오의 疏肝通絡法에서 쓴 藥과 서로 같으니, 왕슈까오의 疏肝通絡法은 바로 예티엔스의 辛潤通絡法임을 알 수 있다.

다시 예를 들어 보자. 왕슈까오의 泄肝和胃法의 경우, 왕슈까오는 “肝氣乘胃하면 脘痛嘔酸한다. 二陳湯에 左金丸을 넣거나 白蔻·金玲子을 넣는다. 곧 泄肝和胃法이다.”(肝氣乘胃, 脘痛嘔酸, 二陳加左金丸, 或白蔻·金玲子, 卽泄肝和胃之法也.)라고 했다. 예티엔스는 肝氣犯胃를 치료할 때 “泄厥陰해서 그 쓰임을 펼치고 和陽明해서 그 腑를 利한다.”(泄厥陰以舒其用, 和陽明以利其腑)는 學說을 제출하고는 苦辛通降法을 많이 썼다. 泄肝에는 左金丸에 金玲子散을 合해서 늘 쓰는 것을 주로

삼았고, 和胃에는 二陳湯에서 甘草를 빼고 썼다. 예를 들어 보자. 『指南』, 『嘔吐門』의 高案에서는 “咽阻吞酸·痞脹·食入嘔吐, 이것은 肝陽犯胃로 苦辛泄降해야하니, 吳萸·川連·川楝子·杏仁·茯苓·半夏·厚朴 등이 적당하다.”(咽阻吞酸·痞脹·食入嘔吐, 此肝陽犯胃, 用苦辛泄降, 吳萸·川連·川楝子·杏仁·茯苓·半夏·厚朴.)라고 했다. 왕쉬까오의 泄肝和胃法은 예티엔스가 肝氣犯胃를 치료하는데 쓴 方藥과 기본적으로 서로 같다.

기타 예컨대 왕쉬까오의 柔肝養肝法·緩肝法·息風和陽法·息風潛陽法·清肝泄火法은 모두 예티엔스의 영향을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기술하지 않는다.

왕쉬까오의 肝病治療가 비록 예티엔스를 본받았지만 임상실천속에서는 또한 많은 창조적인 발명이 있었다. 왕쉬까오의 肝病에 대한 주된 공헌은 『內經』·『難經』중의 肝病을 치료하는 이론과 관련된 지도아래에서, 前人을 종합했는데 더우기 예티엔스의 肝病을 치료한 경험을 總結했다. 몇 개의 醫案속에 肝을 치료하는 경험을 홀트러트려 升華提高했고, 창조적으로 肝病의 이론과 치료원칙을 발전시켰으며, 『西溪書屋夜話錄』을 지었는데, 이것은 肝病을 치료하는 전문적인 저서로 후세의가의 肝病을 치료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四.疏肝에는 柴胡使用을 꺼리는데 이는 깊게 예티엔스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柴胡는 疏肝解鬱하고 和解少陽의 要藥이다. 歷代醫家は 늘 柴胡를 써서 疏肝理氣시켰다. 예를 들어 보자. 장중징(張仲景)의 四逆散·장징위에(張景岳)의 柴胡疏肝散 등이다. 왕쉬까오는 『西溪書屋夜話錄』에서 뿐만이 아니고 그의 醫案속에서 疏肝시키는데 모두 柴胡를 쓰지 않았다. 예티엔스는 溫病의 大家로 일생 동안 柴胡사용을 꺼렸다. 예를 들어 보자. 그

는 『三時伏氣外感篇』속에서 “柴胡는 肝陰을 劫奪한다.”(柴胡劫肝陰.)라 했다. 예티엔스는 『指南』에서 뿐만이 아니고 『未刻本醫案』속에서 柴胡를 쓴 醫案은 몇 개 되지 않는다. 왕쉬까오는 疏肝에 柴胡를 쓰지 않았는데, 이는 몹시 예티엔스의 영향을 받은 소치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몇가지의 논술에서 볼 때, 왕쉬까오의 학술사상은 清代 名醫인 예티엔스의 영향을 깊게 받은 것이다.

(本文은 츠양츠운(長春) 中醫學院 위앤스후아(袁世華)가 教授에게 부탁하여 심사하고 校閱한 것에 힘입은 것이니, 여기에 致謝를 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김용옥,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통나무, 1986년.
2. 長春市 中醫院 內科 張堅石, 「葉天士對王旭高學術思想的影響-王旭高學術思想淺析」, 『吉林中醫藥』 1990年 第1期.